

무주산골영화제 올해 공식 포스터 공개

산 속에서 '따뜻한 희망' 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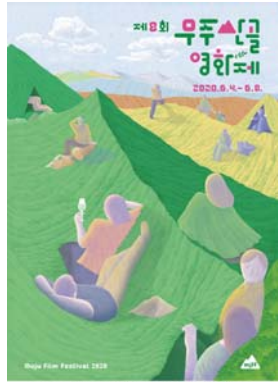
포스터 전체 감싼 초록빛 산의 싱그러움
초여름 무주의 모습 감각적으로 담아내

영화와 자연을 사랑하는 영화여행자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초여름의 낭만 영화제 제8회 무주산골영화제(2020.6.4 ~ 6.8)가 올해 공식 포스터를 공개한다.

제8회 무주산골영화제가 숲으로 떠나는 초록빛 낭만 영화제를 예고하는 올해의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다. 이번 공식 포스터는 산 속에서 편안한 휴식과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따뜻하게 표현되어 시선을 끈다.

포스터 전체를 감싸고 있는 초록빛 산의 싱그러움은 초여름 무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각적으로 담아내고 있으며, 무주산골영화제의 관객들을 투영한 것 같은 인물들이 각자 다양한 형태로 한 곳을 바라보며 자유로운 시간을 만끽하고 있는 모습을 영화적 상상력으로 완성시켰다.

이번 공식 포스터에 참여한 김영준 작가는 애니메이션의 장르적 확장성과 예술성에 대한 실험을 지속하고 있어 최근 한국에서 가장 주



제8회 무주산골영화제 포스터

목받고 있는 작가로 손꼽힌다.

대립미술관 프로젝트 '구슬모아 담구장'과 KT&G 상상마당 춘천, '디뮤지엄' 등의 전시에 참여했으며, 뮤지션 김동률과 아이유의 '동화' 뮤직비디오, 네이버 '지구의 날' 로고를 제작하고 아모레퍼시픽, 현대백화점 등과 협업하며 작가 특유의 감각적이고 따뜻한 이미지

를 대중들에게 선보여왔다.

김영준 작가는 '제8회 무주산골영화제' 공식 포스터에 대해 "산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기 위해 잠시 붓을 내려놓고 산을 새로운 시선으로 내려다보기 시작했을 때, 마치 편안한 소파의 연속처럼 보였던 그 느낌이 지금의 무주산골영화제 포스터로 이어진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무주에서 편안한 자연을 배게 삼아 좋은 영화를 함께 봄으로써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희망을, 이 포스터를 보는 모두가 함께 느끼길 바란다."고 덧붙이며,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대하는 많은 영화 여행자들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담아내고자 했음을 밝혔다.

현재 김영준 작가는 올해 포스터 콘셉트의 연장선상에 있는 무주산골영화제의 새로운 트레일러를 제작 중이며, 본 트레일러는 영화제 기간 중 선보일 예정이다.

신선한 초록 바람을 따라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공식 포스터를 공개해 눈길을 끄는 제8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오는 6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무주군 일대에서 열린다. /무주=전문선 기자

국립발레단 정단원 해고... 파격 징계 배경은?

“국립 위상 심각한 위해”

자가격리 기간 중 여행 일탈 공분... 징계위 열린것도 이례적

국립발레단이 창단 58년 만에 처음 정단원을 해고하는 징계를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립발레단은 16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체 자가격리 기간 내 특별지시를 어긴 단원 내대환(28)을 해고했다.

단원들의 부침이 적었던 국립발레단에서 자체 징계위원회가 열린 사례는 드물다. 2000년대 초반 폭행, 2000년대 중반 패션잡지에 상반신 누드 사진을 공개한 단원이 감봉 징계 등을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징계위원회가 열린 것도 이례적이었다. 그런데 처음으로 정단원에 대한 해고 처분까지 내려진 것이다.

일부에서는 내대환에 대한 이번 징계가 과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낸다. 하지만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재난에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있는 흐름에서 국립 기관으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징계 규정 중 국립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조항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국립발레단 윤리헌장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3조 2항에도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발레단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명시돼 있다.

1962년 창단한 국립발레단은 국내 손꼽히는 무용수 엘리트들이 국립발레단에 입단하고 있다. 현재 정단원은 70여명이다. 웬만한 해외 발레단 못지않은 실력을 보유하고 있고, 대우도 안정적이다. 이런 자가격리 사태로 실력뿐만 아니라 국립 단체에 소속된 예술가로서 책무 의식도 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징계위원회에는 김수진 예술감독 겸 단장, 권영섭 사무국장 등이 참여했다. 평소

단원들에 대한 국립발레단의 간부진과 사무국의 애정은 잘 알려져 있다. 발레단 관계자는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하지만 강 감독 등이 속한 징계위원회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평소 단원들을 믿고 외부 활동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해온 강 감독이라 더 안타깝고 실망감이 컸을 것으로 추측된다. 대중 사이에서는 국립발레단의 이번 해고 결정에 당연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일부에서는 내대환이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그는 이날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발레단 위상에 이미 큰 타격을 준 상황이라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강 감독 명의로 공식 사과까지 한 상황이다. 약화된 코로나 19로 예민해진 국민 정서도 내대환에게 불리하다.

'댄싱 로맨스'를 표방한 케이팝 음악채널 엠넷의 '썸바디'로 얼굴을 알린 내대환은 제작년 10월 국립발레단 신입단원 선발 오디션을 통해 입단했다.

한편에서는 징계와 별개로 마녀사냥하듯 내대환을 대하는 행태는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와 함께 일본으로 여행을 간 것으로 알려진 여자친구인 플로리스트 A의 실명도 이번 사태로 거명됐다.

최근 민감한 상황에 자가격리를 어겼고, 게다가 최근 한국과 관계가 악화된 일본으로 여행을 간 것에 대한 공분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생활까지 마구잡이로 파헤치는 행위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날 국립발레단은 자가격리 기간 행동 지침을 어긴 솔리스트 김희현과 수석 무용수 이재우에 대해서는 각각 징적 3개월과 징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뉴시스

코로나19 의료인·공무원 힘내세요... 토닥토닥 템플스테이

불교문화사업단, 3~10월

좋은 사찰 15곳서 운영

전북지역은 금산사에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선 의료인 및 관련 공무원을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 '토닥토닥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문화사업단이 펼치는 공익사업 '나눔 템플스테이'의 일환인 이번 토닥토닥 템플스테이는 3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의료인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전국 137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중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휴식하기 좋은 사찰 15곳에서 이뤄진다.

해당 사찰은 금산사(전북), 낙산사(강원), 동화사(대구), 불국사(경북), 삼화사(강원), 송광사(전남), 수덕사(충남), 신륵사(경기), 은혜사(경북), 증심사(전남), 통도사(경남), 한국문화연수원(충남), 해인사(경남), 화계사(서울), 화엄사(전남) 등이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산사에서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도록 휴식형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제공하며, 최대 3박4일까지 지원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참가를 원하는



사찰에서 운영되고 있는 템플스테이 현장.

의료인 등은 템플스테이 예약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화사업단장 원경스님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치료 및 예방, 방역에 종사하는 보건 의료관계자와 관련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극심해지고 있다"며 "이들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처 제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판단해

토닥토닥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사업단은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공익 템플스테이인 나눔 템플스테이를 꾸준히 운영해 왔다. 2019년에는 총 2만5000여명에게 나눔 템플스테이를 지원한 바 있다. /뉴시스

완주문화도시추진단, 코로나19 극복 '일상 응원 캠페인'

완주문화도시추진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우리 일상을 서로 응원하는 캠페인을 마련,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완주, 힘내자!'를 주제로 한 이번 응원 댓글 캠페인은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긍정의 한 줄'을 서로 서로에게 선물하고자 기획됐다.

완주문화도시추진단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은 홈페이지 상단 및 추진단 SNS에 한 주

동안 게시된다.

이와 함께 완주군 내 지역공동체가 운영하는 카페, 책방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 이벤트도 진행된다.

문운걸 단장은 "많은 주민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으로 심리적 불안감까지 경험하고 있다"며 "심리적 거리 두기는 필요하나 심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작은 희망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온라인에서도 커뮤니티케이션 활동이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